

[사회]

교도소에 울려퍼진 ‘따뜻한 선율’

광주교도소 ‘구자범 시향’ 공연

300여명 수형자들 뜨거운 박수

시향에 감사패 전달

28일 오후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의 연주회가 열리는 공연장을 찾아가기 까지는 절차가 복잡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맡겨야했고, 인솔자를 따라 누군가 지키고 있는 ‘문’을 여러차례 통과해야했다.

이날 클래식 선율이 가득했던 공간은 광주교도소(소장 김선태) 강당. 관객은 푸른색 수의를 입은 수형자들이었다. 좁은 강당을 채운 아름다운 음악과 그 화음을 만들어낸 단원들은 순간의 잘못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함을 전한 전령사들이었다.

광주교도소에서 진행된 광주시향 연주회가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공연 초반 다소 낯선 풍경에 어색해 하던 300여명의 수형자들도 연주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긴장을 늦추는 듯 보였다.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첼리스트 박문경씨가 가슴을 울리는 헬로 선율의 ‘콜 닌드라이’를 연주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상념에 젖는 듯한 수형자도 보였다. 타악기들이 어우러진 보로딘의 곡 ‘플로베즈인의 춤’이 흐를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는 이도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과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주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에 맞춰 당초 프로그램에서 흥겨운 춤곡은 제외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구지휘자와 단원들이 모두 일어서 인사를 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했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지금까지 국악 공연,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이 간혹 있었지만 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교도소 연주회는 구지휘자



세상과 격리된 교도소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퍼졌다. 28일 광주교도소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서 구자범 지휘자가 단원들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취임 당시 연주회장을 직접 찾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했다.

그는 앙상블 위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달리 77명 단원과 하프·타악기 등 객원단원 3명까지 함께 한 큰 무대를 준비했다.

광주시향 스텝들은 5톤 트럭 2대 분의 물품을 싣고와 직접 무대를 만들었다.

함께 연주해준 단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구지휘자는 “세상과 단절돼 교도소에 살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 없어 방황하게 됐다”며 “오늘 연주를 들은 분들의 반응이 참 궁금

한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단 한두 명이라도 감동을 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 후 광주교도소측은 광주시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시향은 이주 노동자 등을 찾아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전남대 공연도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교폭력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한다

10명 중 8명 “신고 해봤자 …” 발생 장소는 교실·화장실

광주YMCA 426명 설문

광주지역 학교폭력의 76%가 교실이나 화장실 등 학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사는 28일 광주지역 중·고교생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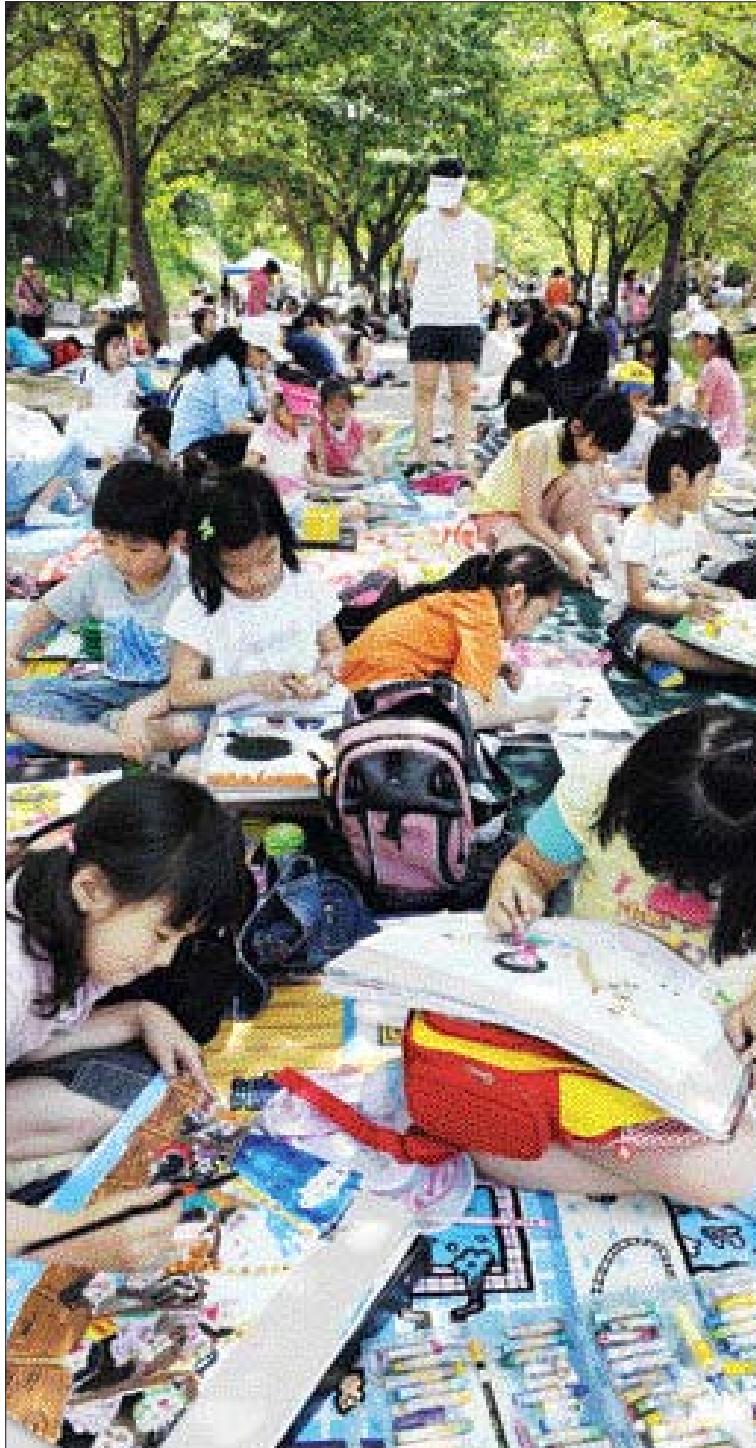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76.1%(324명)는 학교폭

력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학교 내 후미진 곳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난다고 답했다.

또 74.7%(318명)는 학교폭력을 당해도 보복이 두렵거나(51.2%),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23.5%, 100명)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은 특히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 중 82.6%는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학교폭력이 벌어진다고 했으며, 심지어 20명(4.7%)은 수업시간에도 ‘학교폭력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솜씨 자랑

28일 광주시 북구 금호파밀랜드에서 열린 제54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에 참가한 5천여명의 예술 꿈나무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 솜씨를 뽐내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농민들 울린 대부업자 5명 입건

120% 고리에 농기계 빼앗기도

해남군에 사무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농민과 영세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率를 받아챙긴 채모(42)씨 등 5명을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해남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해 9월 마모(32)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500만원을 떼는 등 농민 6명에게 2억9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49%)의

2.5배에 달하는 연 12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담보로 농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빚을 갚지 못 할 경우 농기계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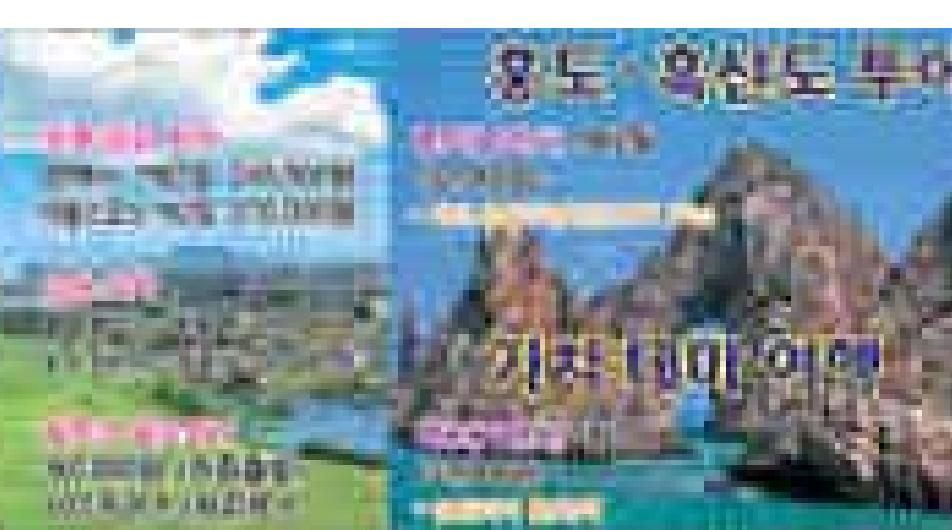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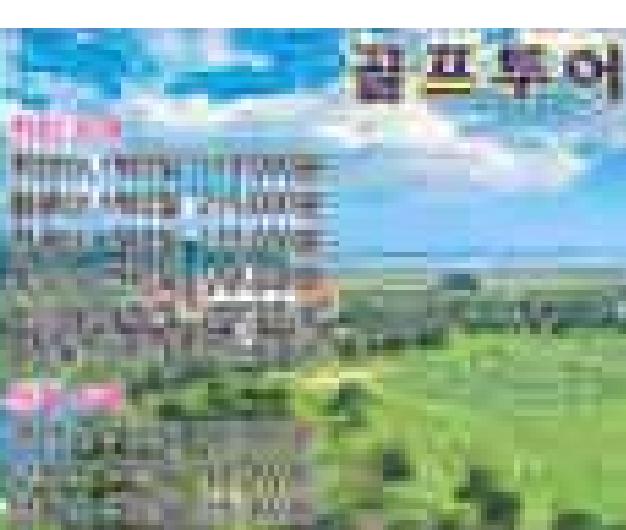
경찰은 이들의 자금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판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 담보로 잡은 농기계를 처분하는 과정 등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뇌물경찰 협박 돈 뜯은

사이비 기자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는 28일 ‘뇌물 경찰’을 협박해 금품을 뜯고 기자 채용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챙긴 모 인터넷 신문 광주·전남본부장 박모(50)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정모(55·구속) 경위가 2007년 6월 장모(42)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해 준 대가로 30만원을 받아챙긴 것을 밟미로 정 경위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해당 언론사의 부장을 채용하면서 200만원을 받는 등 기자 4명에게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
해물 05시 20분
달콤 10시 08분

서울 맑음
인천 맑음
대전 맑음
대구 맑음
부산 맑음

가시는 길 햇살

대체로 맑겠으며 곳에 따라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기상

광주	흐린 뒤 맑음	17/30°C
목포	구름 조금	16/25°C
여수	구름 조금	17/24°C
완도	구름 조금	15/27°C
구례	흐린 뒤 맑음	13/30°C
해남	구름 조금	13/27°C
장흥	구름 조금	13/28°C
고성	구름 조금	13/28°C
순천	구름 조금	15/28°C
영광	구름 조금	15/27°C
전주	구름 조금	13/27°C
전주	맑음	14/30°C
남원	구름 조금	12/30°C
흑산도	구름 조금	15/20°C

바다

비단	풍랑	파고
서해 남부	일비하다	0.5~1.0m
면비단	북~북동	1.0~1.5m
남해 서부	일비단	북~북동
면비단	북~북동	1.0~2.0m
면비단	북~북동	1.0~2.5m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기상청)

날짜
날씨
최저/최고

30(토)
31(일)
6(1월)
2(화)
3(수)
4(목)

15/28
15/29
15/30
16/30
17/27
16/27

광산경찰, 9명 영장

터 446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나주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5명은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로 드러났으며,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입원하겠다”는 식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해 보험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자주 입원한 광주 모 외과 등 병의원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위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 등 병행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현법재판소 판결 2题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
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현법상 ‘사전허가금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현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체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가 기본법은 행복주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